

# 러시아 연방의 테러리즘 원인 분석 : 북코카서스를 중심으로

이중원

(한양대 국제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 |                        |                |
|------------------------|----------------|
| I. 서론                  | 2. 동일시 이론시각    |
| II. 테러리즘 원인의 이론적 틀     | 3. 국제정치체제 이론시각 |
| III. 북코카서스의 테러리즘 원인 분석 | 4. 현대사회구조 이론시각 |
| 1. 상대적 박탈감 이론시각        | IV. 결론         |

## 초 록

본 논고는 북코카서스 지역에서 체첸민족의 독립운동으로 시작된 체첸 분쟁이 본래의 민족독립에 대한 열망은 흐려지고 이슬람 근본주의인 와합주의에 기초한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과격 테러리즘이 북코카서스 지역전체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테러리즘은 한 가지 이유보다는 복잡한 이유들이 서로 뒤엉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테러리즘을 규명하려는 많은 연구가 국, 내외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이론이 파생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북코카서스에서 발생하는 이슬람 테러리즘을 규명하는데 있어 테러리즘 발생 원인에 대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상대적 박탈감 이론, 동일시 이론, 국제정치체제 이론, 현대사회구조 이론을 선택하여 그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 I. 서론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한 북코카서스 소수민족 공화국들은 소련 통치 말기부터 정치, 경제적 권한 확대와 자치권의 획득, 주권선언을 주장하며 분리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족독립을 위해 나섰던 세력들은 점차 사라져가는 반면 북코카서스 범 이슬람제국 건설을 목표로 한 이슬람 근본주의<sup>1</sup>가 지역사회에 서서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으며 러시아 연방과 이 지역 사회 간의 정치적 타협점이 부재한 사이에 파고든 이슬람 근본주의는 그 양측 간의 간격을 점점 벌려놓고 있다. 사실 체첸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이슬람 근본주의인 와합주의(Wahhabism)는 그리 광범위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제1차 체첸 전쟁 당시 민족주의자들의 목표는 러시아 연방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공화국의 완전한 독립적 지위를 얻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1차 체첸 전쟁 기간에 이슬람의 재정적, 인적 지원과 전투물자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꼈던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영토 밖의 이슬람 와합주의 세력을 끌어들이고 이는 더 나아가 중동, 아프리카와 코카서스 주변의 이슬람 세력까지 유입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결국 북코카서스에 이슬람 급진세력이 대거 발판을 들여놓게 되었고 1차 체첸 전 이후 민족주의자들은 이슬람화와 더불어 와합주의 즉, 이슬람 근본주의를 선택하면서 대러시아 투쟁을 벌였다. 제2차 체첸 전쟁 이후에는 체첸을 비롯한 북코카서스 지역이 이러한 이슬람 근본주의로 급속히 물들여지는 가운데 각종 무장단체들이 저지르는 유혈테러 사태들은 지역사회를 정치적, 사회적으로 분열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현재까지도 북코카서스의 이슬람 근본주의는 러시아 연방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북코카서스에 범이슬람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2007년 조직된 도쿠 우마로프(Doku Umarov)의 이슬람 과격단체인 코카서스 에미리트(The Caucasus Emirate)를 비롯한 여타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체첸과 다게스탄, 잉구세티아를 활동 근거지 삼아 북코카서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도 광범위한 유혈테러를 저지르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최근 10년 러시아 내 주요 테러 일지

1996.05.22	상트페테르부르크 아파트 폭탄 테러 어린이 8명 등 19명 사망
1999.03.19	블라디카프카즈 야외 식품시장 폭발 사건 50여 명 사망
1999.04.26	모스크바 크렘린궁 인토리스트 호텔 폭발물 테러 11명 부상

<sup>1</sup> 종교나 지역에 따라서, 혹은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쓰고,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도 논란이 남아있지만 사실 이슬람 '근본주의'와 '원리주의', '과격주의'는 모두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에서 이슬람 근본주의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인 '와하비즘(Wahhabism)'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통칭해 '이슬람 근본주의(fundamentalism)'로 사용할 것이다.

1999.08.31	크렘린 궁 인근 마네즈 쇼핑센터 폭발 1명 사망, 41명 부상
1999.09.04	다게스탄 군 장교 가족 숙소 차량 폭탄 테러 64명 사망
1999.09.09	모스크바 남동부 9층 아파트 폭발 93명 사망
2000.08.08	모스크바 푸시킨 광장 지하도 폭탄 테러 13명 사망, 130여 명 부상
2001.03.24	3개 지방도시 동시다발 차량 폭탄 테러 28명 사망, 150여 명 부상
2001.08.19	남부 항구도시 아스트라한 시장 폭탄 테러 7명 사망, 41명 부상
2002.10.23	러시아 남쪽 벨니코바 뮤지컬 극장 인질극 170명 사망
2003.07.05	모스크바 투시노 락 콘서트장 자살 폭탄 테러 20명 사망, 30명 부상
2003.12.09	모스크바 내셔널 호텔 앞 승용차 자살 폭탄 테러 6명 사망, 14명 부상
2004.02.06	빠벨레즈카야 지하철역 폭탄 테러 40명 사망, 122명 부상
2004.08.31	모스크바 보드스카야 지하철 역사 폭탄 테러 10명 사망
2004.09.01	북오세티야 베슬란 인질 테러 사건 344명 사망
2007.08.13	모스크바 북서부 고속 열차 테러 승객 60명 부상
2009.06.22	잉구셰티아 유누스-벡 예브쿠로프 대통령 자살폭탄 테러로 중상
2009.11.27	노브고라드 열차 폭탄 테러 39명 사망, 90여 명 부상
2010.01.06	다게스탄 경찰서 자살 폭탄 테러 6명 사망, 16명 부상
2010.03.29	러시아 모스크바 연쇄 지하철 폭탄 테러 38명 사망, 78명 부상

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196069>(검색일:2010.11.15)

이슬람 무장세력이 저지른 테러 공격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과 관리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2010년 들어 북코카서스에서만 37건의 테러가 발생했고 이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수치며 지금까지 총 246건의 테러로 인해 149명의 군인과 경찰이 사망하고 384명이 부상당했다.<sup>2</sup> 최근에는 체첸보다도 잉구셰티아와 다게스탄에서의 테러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다게스탄에서 살해되는 연방군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북코카서스 전 지역에서 테러로 인한 사망자의 약 65%가 다게스탄에서 목숨을 잃었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테러행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민족독립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범 이슬람제국을 모토로 한 이슬람 근본주의를 바탕으로 행해진다는 데 있다. 이슬람 전사들과 중동 등지에서 온 이들은 이 지역에 민족주의가 아니라 이슬람의 종교적 부흥을 꾀하고 있다. 체첸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사망한 지금<sup>3</sup>, 와하비즘에 기초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은 북코카서스에 이슬람 영토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를 두면서 러시아 연방의 가혹

<sup>2</sup> <http://www.themoscowtimes.com/vedomosti/article/north-caucasus-attacks-rise-4-times/416566.html> Moscow Times(검색일:2010.11.02)

<sup>3</sup> 조하르 두다예프 1996.4 피살, 이븐 카탐 2002년 초 사망, 젤립한 안다르비예프 2004.2 피살, 아슬란 마스하도프 2005.3 사망, 샤밀 바사예프 2006.7 피살.

한 공권력과 법적 절차가 부재한 강제연행, 그리고 부패한 정부와 높은 실업률에 휘둘린 지역 젊은이들을 현혹하여 이슬람 전사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sup>4</sup> 이들 무장단체가 지속적으로 젊은 세대를 유입하여 또 다시 테러의 도구로 내모는 것은 현재 러시아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북코카서스를 비롯한 러시아 연방에서는 왜 이러한 테러행위가 끊이지 않는 걸까. 물론 그 시발점에는 민족독립을 위한 열망이 있겠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의 테러 현상들은 주로 와하비즘에 기초한 이슬람 반군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며 지역의 토착주민들까지 이들 이슬람 근본주의에 포섭되어 테러리즘에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북코카서스는 이제 더 이상 민족주의자들이 아닌 이슬람 반군무장세력에 의한 테러행위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에 대한 답에는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테러리즘 자체의 복잡한 속성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북코카서스의 경우에는 민족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로 한데 뒤섞여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고에서 북코카서스의 테러리즘 현상을 규명해보려 하는 것은 이러한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테러리즘의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 그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며 북코카서스 안정을 위한 실마리를 모색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취지로 본 논고에서는 북코카서스의 테러행위에 대해서 현재 테러리즘 원인을 분석한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이론을 적용하여 검토해 볼 것이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현재 학계에서 주장되는 테러리즘 원인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 4가지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각각의 항목을 북코카서스 테러리즘 현상에 적용해 볼 것이며 마지막 4장에서는 앞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코카서스의 테러리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

## II. 테러리즘 발생 원인에 대한 이론적 틀

현재 테러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 심리적인 측면, 폭력이론이나 현대사회, 국제정치 현상에 의한 이론 등 테러리즘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sup>5</sup>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이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 주기는 하지만 어떠한 이론도 단독으로 테러리즘을 규명할 수는 없으며 그 근본적인 이유는 테러리즘은 어느 한 가지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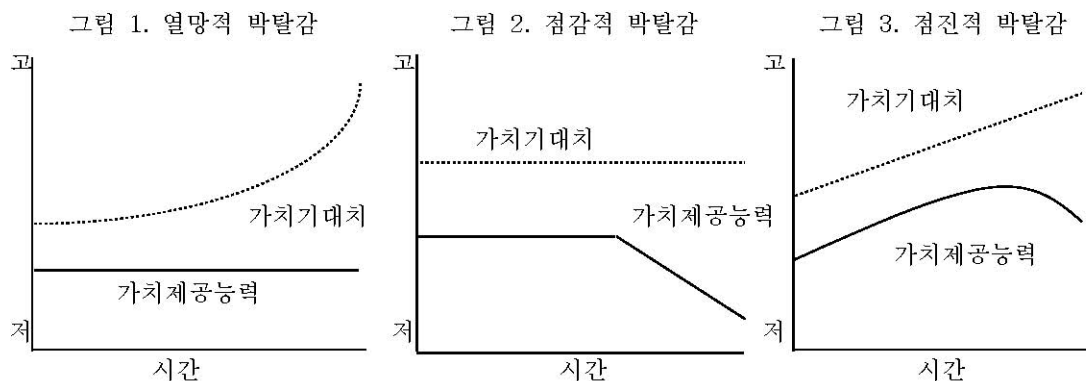
<sup>4</sup> [http://www.sras.org/medvedev\\_reach\\_out\\_to\\_islam](http://www.sras.org/medvedev_reach_out_to_islam)(검색일:2010.11.02)

<sup>5</sup> 최친태,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대영문화사』, 1997, p. 44.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북코카서스처럼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는 지역을 설명하기에는 더욱 부족할 것이다. 고로 필자는 앞으로 소개되는 이론들 중 어느 하나 특정한 이론으로만 북코카서스 테러리즘 현상을 설명할 의도는 없으며 복잡한 만큼 다양한 이론으로 조금씩 그 현상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우선 사회, 심리이론적 측면에서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론은 테드 거(Ted R. Gurr) 박사의 이론으로 테러의 원인을 상대적 박탈감 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으로 체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sup>6</sup>

좌절-공격 이론(Frustration-Aggression Theory)라고도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 이론은 개인 또는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대와 이익간의 괴리 또는 가치 기대와 가치능력간의 차이가 테러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박탈감 이론은 사회의 요구형성도가 사회적 만족도를 훨씬 초과한 경우에 사회적, 심리적 좌절감이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박탈감의 돌파구를 폭력에서 찾게 되며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테러주의로 발전한다는 것인데 그의 이론은 크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민들의 기대치는 상승하는데 이 기대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체제능력이 한정적인데서 빚어지는 열망적 박탈감(Aspirational Deprivation), 국민의 기대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대치를 받쳐줄 국가의 능력이 점차 퇴보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점감적 박탈감(Decremental Deprivation),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 삶의 조건이 개선되어 왔고 앞으로도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점진적 개선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나타나는 점진적 박탈감(Progressive Deprivation)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료 : Ted Robert Gurr, 'Why Men Reb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p. 47.

또한 그는 상대적 박탈감 이론과 함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갑작스런 사회경제적인 변화, 정권에 의한 정치참여 기회 강탈, 지하드를 목표로 한 이슬람에 의한 주민 흡수도 테

<sup>6</sup> Ted R. Gurr, 'Why Men Reb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p.46.

러리즘의 발생 원인으로 꼽고 있다.<sup>7</sup> 무엇보다도 북코카서스에서는 '점감적 박탈감'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고질적인 사회 혼란과 정치 불안정, 그리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와 연방으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의 관리들의 심각한 부패가 만연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가치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유헤테러가 극성을 부리고 이에 맞선 러시아 정부가 강압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함에 따라 북코카서스의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은 황폐해져가고 있다.

북코카서스 안에서도 유난히 경제적인 자립도가 낮고 사회적, 정치적인 불안정이 심한 체첸, 다게스탄, 잉구셰티아에서 테러가 유난히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본 이론에 그 근거를 들 수 있겠다. 또한 제 민족이 추방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sup>8</sup> 조국의 독립을 위해 생애를 다 바친 과거 세대와 다른 젊은 세대는 대중매체의 발달로 현재 전 세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른 나라 젊은이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금방 접할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현재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극심한 경제적 빈곤과 높은 실업률, 불안한 치안 등은 많은 젊은 층으로 하여금 좌절감을 겪게 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다.

두 번째는 동일시 이론으로<sup>9</sup> 이 이론은 크게 1차적 동일시와 2차적 동일시로 나뉜다. 여기서 볼 것은 2차적 동일시 이론으로 이는 '나'와 '너'라는 남남의 구별이 있는 대인 관계로부터 설명되는 것이다. 감정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을 본보기 삼아 자기 안에 또 다른 인격체를 만드는 무의식적인 과정이 바로 2차적 동일시로서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sup>10</sup>'도 이러한 동일시 과정의 하나이다. 테러범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질극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생자의 운명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감정이입에 의해서 희생자의 고통을 공감한다는 점을 노리며, 최근 대중 매체의 발달로 이러한 효과는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질극을 목격하는 모든 사람이 희생자에 대한 연민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테러범들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적에게 보복해준다고 생각하거나 폭력행사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힘을 보여준다고 간주하고 테러범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희생당하는 자가 평소 자신들의 적으로 여겼던 존재라면 희생당하는 자의 고통으로부터 모종의 쾌락을 얻는 것이다.<sup>11</sup>

<sup>7</sup> Louise Richardson, "The Roots of Terrorism," 『Routledge』, 2006, p.85.

<sup>8</sup> 스탈린은 일시 점령한 독일군에게 협력했다는 명목으로 1944년 2월 체첸-잉구쉬인 거의 전체에 해당하는 약 50만명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지로 추방시킨 바 있다.

<sup>9</sup> 최진태,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대영문화사』, 2006, p.59.

<sup>10</sup>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인질범들의 주장과 정서에 감화되어 이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비이상적인 심리현상을 일컫는 말로써 1973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4명의 무장 강도가 은행에서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6일 동안 경찰과 대치한 사건에서 유래되었는데 당시 인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질범들에게 호감을 보였으며 구출된 이후에도 자신들을 위해 노력해준 경찰관들을 적대시하고 인질범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심리학자들이 만들어 낸 용어이다.

이슬람 근본주의는 테러리즘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이에 따라 당국의 과도한 군사적, 심지어는 무법적이기까지 한 대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도한 수단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욱 고되게 하기 마련이고<sup>12</sup>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당국에 대한 반감은 지역 주민들이 테러단체에 동조하여 당국의 대응에 적대적으로 반응하고 테러단체에 유, 무형의 원조를 하게 되며 심지어 일반 젊은이들이 무장테러단체에 참여한다는 면에서 테러단체는 테러로 인한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테러리즘 발생원인 중 하나로 간주된다.

세 번째로는 국제정치체제이론을 들 수 있다.<sup>13</sup> 국제정치에 있어 기본적인 행위의 주체가 주권국가인데 이 주권국가는 타국과 이해관계의 충돌에 있어 가능한 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속성이라 보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일부 국가에 의한 테러리즘이 정치목적 달성의 전략적 도구로 사용되어 특정 국가의 정권과 대항하는 테러리스트 단체에 대한 무기, 자금, 피난처 제공과 같은 다양한 양태의 직, 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이러한 지원이야말로 근본적으로 테러리즘의 발생에 기인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본 이론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어느 특정한 국가가 의도적으로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다고 기술하며 미국이 타국에 대한 자국이익 추구차원에서 세계 곳곳에 군사적 개입을 하고 있는 사태를 그 예로 들었다. 또한 핵무기의 출현에 따라 쉽사리 전쟁을 개시하지 못하는 세계 여타 강대국들도 이러한 저강도 분쟁(Low Intensive Conflict)<sup>14</sup>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슬람 근본주의의 경우 그 기준이 약간 애매하다. 현대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모든 이론적 배경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합주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와합주의는 이슬람 성직자들의 독특한 정치체제이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자체를 형성하는 정치 이념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사우디는 이슬람의 종주국으로써 과격 이슬람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sup>15</sup> 오사마 빈 라덴이나 탈레반 같은 급진 이슬람 운동의 뿌리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합

11 A. Schmid and A. Jongman, 'Political Terrorism.' 『Theories And Literature』, 1988, p.92-98.

12 숨어있는 테러분자를 색출하기 위해 일반 주거지에서도 사법당국은 어떠한 법적절차도 없이 의심쩍은 불특정 무슬림들을 납치하거나 암살, 고문을 자행하는데 체첸의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러한 익명의 당국 요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족이나 친척을 납치해 가는 일에 대해 원성이 높았으며 인권단체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325명, 2006년 187명이 인질로 끌려갔는데 실제로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Aleksei Malashenko, 'Chechnya After the Cancellation of Counter-Terrorist Operation,'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70, 21.12.2009.

13 강영숙, 이상철, '테러리즘의 이해,' 도서출판 『진영사』, 2008, p.47.

14 Ibid., p.49. 미국은 저강도분쟁에 대해 '적대국에게 특정한 정치, 군사적 조건을 받아들일도록 강요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하는 쪽에서 분쟁 스펙트럼의 저수준에서 작전하는 활동범위를 말한다.'라고 정의내리며 저강도분쟁은 對반란전(Counter Insurgency)과 親반란전(Pro Insurgency)으로 구분되어지고 여기에는 특수작전, 특수 활동, 비정규전으로 지칭되는 정치, 심리적 작전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의이다.<sup>16</sup> 그러나 이러한 점들만으로는 사우디가 진정 의도적으로 전 세계의 이슬람 무장 세력에 금전적, 인적지원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특히 북코카서스와는 어떤 연계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의문점이 드는데 이 점은 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네 번째는 현대사회구조이론이다.<sup>17</sup> 현대사회의 구조적 상황들이 정치 목적이나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테러사용을 보다 빈번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이론으로 테러발생을 유도하는 현대사회의 환경적 특징으로는 고도의 도시 집중화 현상, 기술발전에 따른 고도화된 교통체계와 대중전달 매체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기체계의 첨단화 등이 있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전달성을 두고 심리학자 프레드릭 해커(Frederick J. Hacker)는 그의 저서 'Crusaders, Criminals, Crazyies: Terror and Terrorism in Our Time'에서 '만일 테러발생에 대한 대중전달을 차단할 수 있다면 모든 테러는 75-80%정도 가량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대중 매체의 전달력은 북코카서스 지역의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웹사이트나 TV, 라디오 등을 통해 이슬람 근본주의에 빠져드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대적 박탈감 이론은 테러리즘은 다른 지역에 의해 뒤떨어진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입장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며 동일시 이론은 테러를 목격하는 사람들이 희생자들에게 감정이입하는 과정에서 공포감을 느끼기 것이 테러단체들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테러리즘을 촉진한다고 말하는 한편, 평소 희생자 측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면 희생자 측에 대한 적개심을 테러범들과 공유하여 테러범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이는 더 나아가 일반인이 테러범으로 변질되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한다. 국제정치체제 이론은 현실주의적 시각의 입장에서 주권국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테러리즘을 지원한다는 주장이며, 현대사회구조 이론은 대중 매체의 발달로 테러단체가 아무런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본래 의도한 목적의 전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테러리즘 발생의 한 원인으로 강조한다.

### Ⅲ. 北코카서스의 테러리즘 원인 분석

#### 1. 상대적 박탈감 이론시각

<sup>15</sup> 전호진, '이슬람 원리주의의 실제,' 『한반도국제대학원』, 2007, p.109.

<sup>16</sup> Michael State Doran, "The Saudi Paradox," *Foreign Affairs*, 1/2. 2004, p.35-51.에서 재인용.

<sup>17</sup> 강영숙, 이상철, op. cit., p.52. 고도로 집중화 된 도시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공격표적을 제공해 주고 은신처를 찾기 쉽게 해주며 테러행위의 목적을 전과할 수 있는 대중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범들의 활동 무대가 된다고 말한다. 또한 대중 매체의 발달은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 이외에도 테러범들 상호 간에 정보, 무기 등의 협력을 강화하게 해주고 국제 조직 간에 정치, 사상적 친화력이 강화되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테드 거(Ted. R .Gurr)박사의 상대적 박탈감 이론은 '기대와 실제 간의 괴리' 또는 '가치 기대와 가치 능력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여기서 기대치란 그들이 당연히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생활의 기본 조건이나 가치를 의미한다.<sup>18</sup>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이란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조건들과 실제로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 조건 간의 격차에서 비롯된다.

그는 그러한 격차 속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테러리즘에 종종 빠져들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겪는 사회 속에서 높은 실업률에 고통 받고 상대적, 경제적 상실감에 사로잡히며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또 다른 옵션이 없을 경우 이슬람 무장단체에 눈을 돌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sup>19</sup>

[표 2] 남방관구(Southern Federal District) 공식기초수치

	영토 (2008년기준, thsd.square km)	인구 (2009년1월, thsd.)	전체인구 대비 노동인구비율	지역의 GDP(rubles)
러시아연방	17.098.2	141,904.0	47.9%	28,254.8
남방관구	591.3	22,901.5	40.7%	2,174.9
체첸	15.6	1,238.4	<b>18.4%</b>	<b>46.8</b>
잉구세티아	3.6	508.1	<b>12.9%</b>	<b>14.8</b>
다게스탄	50.3	2,711.7	<b>33.4%</b>	<b>166.7</b>
카바르디노 발카리아	12.5	892.4	35.0%	50.4
카라차예보 체르케스카야	14.3	427.2	38.8%	28.2
스타브로폴	66.2	2,703.3	44.6%	221.1

<sup>18</sup> 본고에서 필자가 언급해두고 싶은 것은 상대적이라 하여 반드시 주변국이나 옆 동네가 잘 살고 자기가 속한 나라나 지역이 못 산다는 '내 옆사람과의 비교'논리에서 벗어나고자 함을 밝힌다. 테드 거 박사가 주장한대로 본 이론에서 뜻하는 기대치란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나 가치들을 뜻하는 말로써, 어떤 특정 사회가 철저히 외부세계와 격리되어 있다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박탈감이란 것을 느낄 기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처럼 대중 매체와 통신, 이동수단이 발달된 사회라면 비교적 통신 인프라가 덜 발달되어 있을지라도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세계화를 접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이는 자신이 사람으로서 최소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지하게 될 것이다. 북코카서스 지역이 어떤 전기 시설도 없는 사막이거나 북한처럼 당국이 의도적으로 철저히 외부와 격리시키지 않고 또 그러하지도 못한다는 전제 하에 본 논고에서 상대적이라 함은 자신과의 비교대상이 반드시 '옆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싶다.

<sup>19</sup> Louise Richardson, op. cit., p. 85-101.

북오세아티아	8.0	701.8	42.0%	53.7
크라스노다르	75.5	5,141.9	43.5%	655.3
볼고그라드	112.9	2,598.9	48.4%	333.8
로스토프	101.0	4,241.8	45.1%	453.1

자료: data of Rosstat, Rossiya v tsifrakh, Moscow: Rosstat 2009, p.28ff 에서 필자가 재구성

북코카서스 지역에서 다른 공화국이나 주들에 비해 특히 체첸과 잉구셰티아, 다게스탄에서 이러한 경제적인 빈곤이 두드러진다.<표 2 참조>

이는 곧 경제적 박탈감에 빠진 주민들을 테러단체가 쉽사리 유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특히 샤리아 자마트(Shariat Jamaat)를 비롯한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이러한 실의에 빠진 젊은 층을 와합주의로 감화시키며 비교적 수월하게 테러전사로 끌어들이는다.<sup>20</sup> 모스크바 카네기 센터의 코카서스 전문가인 알렉세이 말라셴코(Alexei Malashenko) 또한 다게스탄과 체첸, 잉구셰티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테러사태들은 경제적인 궁핍과 실업률, 그리고 기본적인 삶의 조건조차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다고 언급했다.<sup>21</sup> 특히 이들 공화국들의 재정은 연방의 보조금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편인데 잉구셰티아는 전체 재정의 90%, 체첸은 93%를 의지하고 있으며 북 코카서스에서 가장 큰 공화국인 다게스탄의 1인당 평균 수입은 러시아 연방 전체 평균의 약 42%에 불과하다.<sup>22</sup> 이런 상황에 지난 2009년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러시아가 북코카서스의 보조금을 삭감기로 한 조치를 내려 2009년 한 해 북코카서스는 더욱 어려운 한 때를 보냈는데 이 삭감조치로 인한 사회적 불만과 불안정은 더욱 고조되었다.

푸틴 총리는 높은 실업률과 함께 비효율적인 교육도 테러리즘을 부추기는 근본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sup>23</sup><표 3,4 참조>

[표 3] 북코카서스 주요 지역의 실업률

공화국	실업률
체첸	46-75%
잉구셰티아	46%

<sup>20</sup> <http://www.crisisgroup.org/en/regions/europe/caucasus/192-russias-dagestan-conflict-causes.aspx>(검색일:2010.11.15)

<sup>21</sup> Alexey Malashenko, 'Dagestan: A New Flashpoint In Russia's North Caucasus,' Commission on Security & Cooperation in Europe, Helsinki Commission, 16. June 2009.에서 발췌.

<sup>22</sup> [http://www.jamestown.org/single/?no\\_cache=1&tx\\_ttnews%5Btt\\_news%5D=35497](http://www.jamestown.org/single/?no_cache=1&tx_ttnews%5Btt_news%5D=35497)(검색일:2010.11.15)

<sup>23</sup> The Guardian지 2004.9.13.

다게스탄	20%
카바르디노 발카리아	14%
카라차예보 체르케스카야	14%
스타브로폴	7%
쿠반	5.9%
모스크바	1%

자료: Novyye Izvestiya, 28 July 2008. <sup>24</sup>

북코카서스의 교육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다게스탄의 초, 중학교와 대학교육시스템은 매우 뒤떨어져 있고 교육계에도 부패가 만연해 있다.<sup>25</sup> 즉, 비용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북코카서스의 학교들은 입학이나 시험을 통과하려면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학생들을 받는데 있어 따로 정한 입학기준이 없어 뇌물과 인맥은 필수사항이다. 대학을 등록한 후에라도 선생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가져다주어야만 시험에 통과될 수 있으며 의학이나 법학부는 그 뇌물비용이 훨씬 올라간다.<sup>26</sup> 이러한 불필요한 지출을 포함한 높은 교육비 때문에 일반 가정의 아이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힘든 상태이며 여성의 교육률은 더욱 뒤떨어져 있다.

[표 4] 북코카서스의 청년백수(2002년 기준)

	청년 백수 비율 (15-24세) <sup>27</sup>
러시아 연방	10.3%
체첸	54.9%
다게스탄	40.7%
잉구세티아	70.5%
카바르디노 발카리아	35.1%
북오세아티아	21.4%
스타브로폴	21.0%

자료: Agranovich et al(2005)

<sup>24</sup> <http://www.newizv.ru/news/2008-07-28/94729> (검색일:2010.11.15)

<sup>25</sup> Arbakhan Magonedov, 'Dagestan and the Russian State: "Stable Instability" Forever?,'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70, 21.12.2009, p. 12.

<sup>26</sup> 다게스탄의 경우 적게는 70\$에서 법학부의 경우 1,000\$까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뇌물을 지불한다. <http://ns.worldbank.org/ru/lacava/3e.pdf>(검색일:2010.11.15)

<sup>27</sup> 학생의 신분도 아니고 직장에 몸담고 있지 않은 젊은이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도 북코카서스의 교육수준은 대략 10-15년 뒤떨어진 상태며 교육에 필요한 여러 기자재들을 살 돈은 커녕 교사들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도 않고 있다. 그러한 교사들 또한 지식이 불충분하고 효과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북코카서스 지역의 경제적 빈곤문제와 높은 실업률, 부패로 문드러진 교육으로 인해 거리로 버려진 젊은이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훌륭한 포섭대상이 되어 테러전사로 양성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게스탄의 새로운 대통령인 마고메드살람 마고메도프(Magomedsalam Magomedov)는 지난 2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심각한 부패와 빈약한 경제 사정, 특히 젊은이들 사이의 실업문제는 테러리즘이 사회적 기반을 강하게 구축하고 그 세를 더욱 확장하도록 만들어줍니다."<sup>28</sup>

## 2. 동일시 이론시각

동일시 이론에서는 두 가지 효과가 테러리즘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희생자들에 대해 감정이 이입되면서 테러를 목격한 사람들도 희생자들과 똑같은 공포를 느껴 테러의 목적이 보다 넓게 전달되는 효과 때문에 테러리즘이 발생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평소 테러를 당하는 희생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희생자들의 고통에서 희열을 느끼면서 테러리스트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들의 사상에 동화되며 이들을 지원, 심지어는 그 스스로 테러리스트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는 발생 지역과 대상에 대한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되는데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은 그 목격자들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며 이슬람 무장단체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데 북코카서스의 테러리즘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더욱 반러시아 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테러집단에 동조하는 효과를 얻기도 한다. 이 이론은 왜 러시아 연방이 북코카서스의 테러리즘을 근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테러리즘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면 할수록 그 세가 줄어들기는 커녕 어째서 지역 사회에 더욱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지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 이론에서 중요시 된 요소가 경제적 요인이라면 동일시 이론에서는 러시아 연방과 체첸, 다게스탄 등 북코카서스 공화국 당국들의 과도한 강경대응이 오히려 테러리즘을 발생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러시아 연방 입장에서는 북코카서스 지역 사회에 이슬람 무장단체가 스며드는 것이 또 다른 골칫거리인 반면, 무장반군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은 당국에 대해서 커다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검, 경찰을 비롯한 당국 요원들은 재판을 비롯한 어떠한 법적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법적

<sup>28</sup> <http://www.reliefweb.int/rw/rwb.nsf/db900sid/SNAA-82K3UT?OpenDocument>(검색일:2010.11.15)

으로 다루어 왔으며 이 지역에서 그런 일들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군이 어느 마을 사람들에게 대해 반군들을 숨겨준다는 혐의를 들면서 마을 안에 있는 모든 총기류를 다음날까지 모두 반납하라고 지시했다가 그 다음날 총기류가 반납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마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등, 테러리스트들을 색출하는데 있어서 일련의 사법 절차가 전혀 없다.<sup>29</sup>

다게스탄의 한 도시인 뷔낙스크(Buinaksk)의 시장 구세인 감자토프(Gusein Gamzatov)는 젊은이들이 적법한 사법절차 없이 죽어가는 일이 종종 있다고 말했으며 다게스탄의 지방 변호사인 마고메드 아부바카로프(Magomed Abubakarov)는 뷔낙스크 지역의 경찰들은 누군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를 테러리스트로 의심하며 테러 혐의를 씌운다고 했다.<sup>30</sup> 국제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의 모스크바 지부소속 인권운동가인 타냐 록시나(Tanya Lokshina)는 2009년 다게스탄의 한 마을인 'Gudben'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과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는 '보안국 요원들은 수염만 있으면 모두 유치장으로 끌고 간다. 늙은이들은 놔두지만 젊은 사람들은 일단 모두 끌고 간다.'면서 당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76세인 Magomed Saihadjiev는 사법당국이 자신의 아들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내 아들은 사원에 기도하러 갔었소. 목격자들에 의하면 사원 옆에 하얀 차량이 대기해 있었는데 내 아들이 사원에서 나오자마자 그 흰색 차량의 요원들이 그를 데려갔다고 했지. 또 다른 목격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 보니 특수 작전에 의해 반군 세 명이 사살되었다고 나오는데 그 중에 내 아들이 있었어요. 내가 정부에 아는 사람도 없었음 아들 놈 시신도 못 찾았을거야. 친척 중에 의사가 있어 시신을 돌려받자마자 부검을 해봤는데 온통 고문당한 흔적 뿐이었어. 여기서 호소할 곳도 없고 유럽법원에 호소해봤자 판결이 나오는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야. 1년? 2년? 5년이 걸릴 수도...내 아들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았고 누구에게도 해를 가한적도 없소. 그런데 경찰이 죽였어. 다른 무고한 두 사람도 함께 경찰이 잡아가지 죽였어. 무고한 사람들을! 아들 녀석에게는 자식이 4명 있는데 이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sup>31</sup>

이러한 일들은 단연 다게스탄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다. 체첸과 러시아 연방군은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반군으로 돌아서게 하는데 당국 요원들은 조금이라도 반군과 연계된 것 같으면 이들과 연계된 반군을 색출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납치, 폭행, 방화, 강간, 살인과 같은 무자비한 수단을 동원한다.<sup>32</sup> 그러나 이러한 수단들은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하는데

<sup>29</sup> 필자가 한양대 아태지역센터 현승수 박사와의 대담 중 확인.

<sup>30</sup> Arbakhan Magonedov, op. c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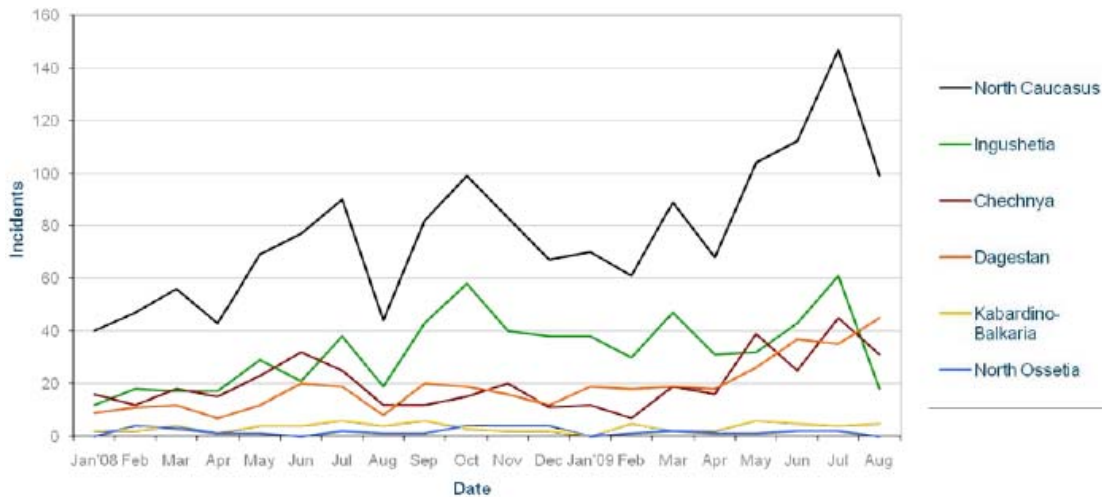
<sup>31</sup> <http://www.opendemocracy.net/article/email/wahhabi-village-in-dagestan>(검색일:2010.11.15)

<sup>32</sup><http://www.criticalthreats.org/russia/violent-summer-north-caucasus-analysis-ingushetia-bombing>(검색

당국에 인권을 유린당한 젊은이들은 복수를 다짐하게 되고 심지어 반군으로 돌아서기도 하며 최근에는 반군으로 변질되는 여성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타냐 록시나는 람잔 카디로프(Ramzan kadyrov)를 중심으로 한 무장군 병력은 인권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다며 이들이 용의자들에게 저지르는 납치, 고문, 살인행위는 지역 사회에 반감만 부추기고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복수를 결심하게 만드는 계기를 심어주어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힘들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

잉구셰티아도 예외가 아닌데 국제사면위원회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도 러시아 연방 당국과 공화국에 의해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고 어떠한 수사절차도 배제되어 있으며 러시아 연방 보안청(FSB)을 포함한 공화국 경찰에 의한 강제구금, 과도한 폭력 남용, 강제납치, 살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외에도 감금기간 동안 고문을 받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데 그 예로 2004년 6월 체첸 무장세력이 관공서를 급습해 약 120명이 사망한 적이 있었다. 그 사건 이후 용의자로 체포된 12명이 각종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2009년 3월 이들의 일가친척은 수도 마가스의 대통령 궁 밖에서 억류된 사람들에 대해 대법원의 심리를 요청하는 데모를 벌이는 등 지역 주민들은 당국의 무법적인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sup>33</sup>

[그림 4] 북코카서스의 폭력사태<sup>34</sup> 발생건수 (2008.1-2009.8)



자료: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www.csis.org](http://www.csis.org))

또한 지난 2009년 러시아 연방의 보조금 삭감조치로 인해 북코카서스 사회가 더욱 불안에 빠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바 있는데 오히려 러시아 연방군과 공화국 당국은 테러리스

일:2010.11.15)

<sup>33</sup>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docs/ngos/AI3\\_RussianFederation97.pdf](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docs/ngos/AI3_RussianFederation97.pdf)(검색일:2010.11.16)

<sup>34</sup> 여기서 폭력사태는 당국에 의한 납치, 살인, 테러용의자에 대한 군 작전, 파괴작전을 의미.

트 색출을 이유로 더욱 철저한 탄압과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저질렀고<sup>35</sup> 이는 결국 지역 주민들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돌아서는 결과를 야기했다.

결국 공화국과 연방의 무자비하고 강압적인 대응은 주민들로 하여금 당국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갖게 만들었고 이는 북코카서스의 무장단체들과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주민들의 적대감은 이들이 무장단체에 동조하고 이들에게 협조하며 특히 젊은 층들이 테러리즘 단체에 대거 흡수되면서 표출되고 있다. 타나 록시나는 고통 받는 젊은이들은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유혹에 더욱 빠져들기 쉬우며 적법한 법적 절차가 부재한 납치나 살해 등 당국의 무자비한 방식은 북코카서스 비극을 지속시킨다고 말한다.<sup>36</sup>

### 3. 국제정치체제 이론시각

2장에서 언급했듯이 본 이론을 적용하기 전에 과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근본주의와 테러리스트들을 의도적으로 수출했냐는 문제가 대두된다. 다시 말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주권국가가 북코카서스의 테러리즘 세력에 대해 의도적으로 재정적, 인적지원을 했는가의 문제다.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무명의 어느 무슬림 집단들이 북코카서스 지방에 안착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은 18세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하마드 이븐 압둘 와합이 창시한 이슬람 개혁주의 운동의 일종인 와합비즘(Wahhabism)을 따르는 집단이었다. 이들은 그들 스스로 순수 무슬림이라 칭하며 무하마드 사후의 모든 꾸란 해석에 대해 거부했다. 러시아에서 와합주의가 나타난 것은 95년 체첸 전쟁 당시, 러시아 언론이 이슬람 각국에서 온 세력이 체첸 민족주의자와 연합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은 체첸 측에 군사적, 재정적 원조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부터이다.<sup>37</sup> 이후 두 번의 체첸 분쟁을 빌미로 북코카서스 지방에도 진출한 와합주의는 다게스탄의 과격 이슬람 세력과 협조하여 그 세를 더욱 확장해 나갔으며 다게스탄의 와합주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과격한 집단으로 변모해갔다. 그러다가 98년 수도 마하치칼라 시청사 점거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비롯한 일련의 테러 사건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와합주의자들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결국 당국에 대한 지하드가 선포되고 산악 지방인 카타르 등지에서는 해당 지역을 이슬람 영토라 선포하기에 이르며 급기야 체첸 분쟁과 얽히면서 러시아 연방에 대한 위협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sup>38</sup>

북코카서스 테러리스트들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와합주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다는

35 <그림 4>참조

36 <http://www.opendemocracy.net/author/tanya-lokshina>(검색일:2010.11.15)

37 현승수, '북코카스 와합주의문제의 기원,' 『슬라브 연구』, 제20권 1호, 2004.

38 Ibid.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북코카서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을 포함해 현재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이슬람 테러집단들의 사상적 논리는 사우디에서 시작된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코카서스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과연 현재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주권국가가 이들 북코카서스의 테러리즘 집단을 배후에서 지원하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렉 모텐슨(Greg Mortenson)은<sup>39</sup>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즘 세력이 수년에 걸쳐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선을 따라 이슬람 사원을 수십 개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였고 도어 골드(Dore Gold)는<sup>40</sup>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 테러리즘에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며 2002-2003년 사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테러집단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실은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금전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사우디 측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국제이슬람구제기구(International Islamic Relief Organization)가<sup>41</sup> 14개의 하마스 무장조직에 대해 지원한 금액인 28만 달러의 세부내용이 적혀있으며 이러한 무장단체들 자금의 60-70%를 책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무장단체들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런데 과연 사우디가 북코카서스의 무장단체들에 계도 지원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해 헌터(Hunter)는<sup>42</sup> 자신의 저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체첸 무장단체에도 지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저서에 따르면 무슬림이 연관된 많은 분쟁들은 러시아로 하여금 아랍세계의 몇몇 국가들과 안 좋은 관계를 맺게 만들었는데 그 중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바로 체첸분쟁이다. 몇 가지 이유로 체첸분쟁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깊은 앙금을 심어놓았는데 첫째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체첸분쟁에 러시아가 행한 일련의 군사적 행위들에 대해서 무슬림 국가 중 가장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사우디는 전쟁 개시 이전부터 체첸 무슬림들에 대해 깊은 주의를 기울였으며 전쟁 개시 후에는 체첸 무슬림들의 어려움을 전 아랍세계에 강력히 호소하였다. 1995년 1월에는 유엔안정보장이사회에 러시아의 체첸공격을 중지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OIC<sup>43</sup>를 끌어들여 더욱 큰 목소리로 체첸전쟁을 비난하였다. OIC회원국들은 OIC

<sup>39</sup> Greg Mortenson, Relin David Oliver, "세 잔의 차," 파주 『이레』, 2009.

<sup>40</sup> Dore Gold, 'Saudi Arabia's Dubious Denials of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Terrorism,' 『Jerusalem Viewpoints』, No. 504, 1 October. 2003.

<sup>41</sup>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브파 4대 전도 조직 중 하나로써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국제이슬람구제기구는 미국 9.11테러사건조사위원회가 후일 탈레반과 알 카에다를 직접적으로 후원하고 있다는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Thomas Lauren Friedman, 이영민 역, "Hot, Flat, and Crowded : Why We Need a Green Revolution - And How It Can Renew America," 『Farrar Straus & Giroux』, 2008.

<sup>42</sup> Hunter, Shireen T., Thomas, Jeffrey L., Melikishvili, Alexander, Collins, James F. (FRW), "Islam in Russia: The Politics of Identity and Security," 『M. E. Sharpe』, 2003, p. 383-384.

<sup>43</sup> OIC는 이슬람회의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로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포함 57개 이슬람 국가로 구성된 최대 회교기구로 회교국가들의 연대강화, 각 분야에서의 교류촉진, 민족독립을 지향하는 회교도들에 대한 투쟁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OIC는 1969년 9월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제1회 회



내 사우디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체첸전쟁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으며 2000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에서 열린 OIC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체첸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체첸 무슬림 민족에 대한 무자비한 처사'라고 규탄하며 체첸 민족주의자들에게 지지를 보냈다. 두 번째로 1997년 체첸 대통령인 아슬란 마스하도프(Aslan Maskhadov)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무슬림 지도자들을 만났고 체첸 공영방송에서는 그의 방문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화적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이슬람 과격파는 체첸 정부를 연이어 공격했고 마스하도프 대통령의 참모인 압트 바탈로프(Apte Batalov)는 사우디가 체첸 내 와하비즘 세력에게 군수물자를 포함하여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며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어쨌든 이 와중에도 사우디는 마스하도프를 포함한 체첸의 민족주의 세력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세 번째로는 엄청난 규모의 금전적 지원이 사우디로부터 체첸에 흘러들어 갔으며 이는 러시아와 사우디 간의 불협화음을 내게 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가 러시아 연방 측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우나 러시아 연방 정부를 통한 공식적인 루트도 있었고 사적인 루트도 존재했으며 합법적으로 자선 형태의 모양새를 갖추기도 했다. 러시아 측 주장에 따르면 사우디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큰 지원 단체는 'Al-Haramain al-Sharifein'과 'Allqra'a'였는데 'Al-Haramain'은 1980년대 아프간 무장단체였던 무자헤딘(mujahedin)에게도 지원하였으며 나중에는 체첸과 다게스탄의 극단 이슬람 단체들에게까지 그 지원을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Allqra'a'는 다게스탄에의 지원에 가장 활발한 단체라 여겨지고 있다. 이 외에도 사적으로 움직이는 많은 지원 단체들이 있는데 러시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세계이슬람청년연맹(The World League of Islamic Youth)은 젊은 이슬람 전사들을 길러내는 훈련소라 전해지고 있다. 유사한 단체로 이브라힘 빈 이브라힘 재단(Ibragim Bin Ibragim foundation) 또한 러시아 곳곳에서 'Summer Camps of Islamic Youth'라는 조직을 통해 극단 이슬람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다. 네 번째는 대부분의 이슬람 반군 유명인들은 모두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라는 점이다. 체첸의 민족주의자들의 영웅인 카탐(Khattab)<sup>44</sup>이나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 같은 인물이 그렇다.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에서의 빈 라덴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접합점이 발견되듯이 체첸 분쟁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카탐이 사우디와 연결되어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미국 오레곤(Oregon) 주에서 열린 법정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재단

교국정상회담의 결의에 따라 발족했으며, 1970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첫 OIC 외무장관회의가 열렸다. 주요 조직은 정상회담과 외무장관회의 사무국 국제이슬람사법재판소로 이루어져있다. 정상회담은 3년에 1번, 외무장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회교국개발은행·국제회교통신사를 운영하며, 예루살렘 탈환을 목적으로 하는 예루살렘위원회도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 있다.

<sup>44</sup> 카탐은 러시아가 지목한 체첸 내 와합파 세력의 수괴이며 체첸 저항파에게 있어서는 무슬림 형제를 돕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워 준 국제 무자헤딘 운동의 영웅이다. 현승수, '체첸전쟁과 국제 이슬람 무자헤딘 운동,'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7권 2집, 2007.

'Al-Haramain'의 지사장인 피트 쎄다(Pete Seda)가 세금 회피 등의 죄목으로 기소되었는데 그의 동료를 통해 전달 받은 150,000달러를 사우디아라비아의 은행을 통해 체첸의 무장단체에 전달하기 위해 이를 합법화하려다 걸린 것이다.<sup>45</sup> 이는 최근까지도 북코카서스 테러단체에 외부에서의 지원이 유입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써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원은 금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는데 2005년 러시아 당국은 잉구세티아에서 쿠웨이트의 야전사령관인 압 제이드(Abu Zeid)를 사살했고 다음 해에는 북코카서스 무장단체에 지원활동을 해온 용병 압 합사 알 우르두니(Abu Hafsa al-Urduni)를 제거했으며 지난해에는 다게스탄에서 무하마드 박사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이집트 출신의 알 카에다 요원을 사살했다. 이렇듯 외부에서 급진 과격파가 북코카서스로 유입되고 지방에 퍼져있는 테러리스트들은 해당 지역에 이슬람 근본주의를 퍼트리려 한다. 그리고 그 뿌리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 2000년까지 체첸 지역에서 무슬림으로 싸워온 미국인 콜린스(Collins)가 쓴 책인 'My Jihad'에서 그는 미 특수부대가 외국인 용병들에게 위조여권과 인권단체 서류를 주면서 이들을 체첸에 보내는데 원조하고 있다고 썼다. 명확한 증거는 아니더라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 그의 주장이 갖는 함의가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북코카서스 지역에서 다른 주권국가에 의해 사주된 세력이 유입하여 테러리즘을 발생하게 만든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역사적으로 북코카서스에 이슬람 와합주의가 당도하는데 그 밑바탕이 되었지만 전적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그러한 전파운동을 펼쳤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으며 최근까지도 재정적, 인적으로 북코카서스 지역의 이슬람 무장단체에 지원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긴 했지만 이 또한 신뢰성 있는 정보의 접근제한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향후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4. 현대사회구조 이론시각

본 이론을 고려해 보았을 때 북코카서스의 무장단체들이 현대사회구조의 이득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분야는 바로 신속한 통신수단이다. 무엇보다도 통신수단의 고도화는 테러리스트가 의도하는 메시지를 일반 대중에게 빨리 전달하는 효과도 있을뿐더러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도 자신들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자신들의 사상을 빠르고도 넓은 범위에 전파해 이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민족분리운동을 펼쳤던 과거 세대가 사라짐에 따라 자연스레 북코카서스의 무장집단 구성원들은 젊은 사람들로 교체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앞서 심각하게 문제되는 것이 있는데 와하비즘이 젊은 무슬림들에게 일종의 가치사상으로써 크게 어필한다는 점이다.

<sup>45</sup> The Voice of Russia : <http://english.ruvr.ru/2010/09/20/21318113.html> (검색일:2010.11.11)

모스크바나 러시아의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다게스탄 젊은이들은 '살라피(Salafi)'라 불리는 이슬람 근본주의에 빠져들면서 당국의 눈에 쉽사리 띄지 않게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인 '자마트(Jamaat)'에 가입하여 세를 형성한다. 북코카서스 출신 청년들에게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러시아 당국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다게스탄 젊은이들은 더욱 이슬람 근본주의에 몰들어가고 있다.<sup>46</sup>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이제 막 근본주의에 몰든 젊은이들이 테러행위를 종용하고 이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이들의 성취감을 고취시켜 준다. 카바르디노-발카리아에서 2006년 대테러 작전으로 검거된 테러리스트들 총 165명 중 87명이 20세에서 30세 사이이며 단 13%만이 30세 이상이었다.<sup>47</sup> 또한 2000-2002년 다게스탄에서 검거된 50여 명의 젊은 와하비즘 테러리스트들 중에서 단 2명만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점에서 와하비즘이 얼마나 세뇌성이 강한지 알 수 있다. 이들에게 무장단체는 자유의 투사고 이교도들을 처단하여 자신들의 고향과 마을을 구하는 영웅 투사들이다.<sup>48</sup> 특히 체첸 반군은 인터넷을 통해 비극적 최후를 맞은 테러리스트를 순교자로 선전하면서 북코카서스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조직형태보다는 무형의 브랜드를 확장해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다. 금년 초 모스크바 지하철 테러를 주도해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된 도쿠 우마로프(Doku Umarov)가 대표적인데 알렉세이 말라센코는 우마로프가 이끄는 무장집단은 본부도 없고, 군대도 없고, 전선도 찾기 힘든 '무형조직'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고통받는 무슬림 형제들을 구출하겠다는 거대한 이상에 부푼 체 국경을 넘어 몰려드는 무슬림 청년들을 그는 단지 위성 전화와 인터넷만으로<sup>49</sup> 결집하여 러시아의 가장 위험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고 하였다.

조직보다 브랜드를 이용한 힘을 발휘하면서 러시아군이 테러리즘 지도자를 제거할 때마다 순교자의 이미지 확산으로 무장단체는 더욱 강해지는데 잉구셰티아의 한 시골에서 러시아 특수부대의 공격으로 사망한 '부리야트스끼'를 애도하는 메시지가 체첸 인근의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을 넘어 터키, 독일에까지 전 세계에서 쇄도하면서 그는 전설적인 순교자로 추앙받았다.<sup>50</sup>

그렇다면 젊은이들은 무엇 때문에 와하비즘에 빠지는 것일까? 그 답은 인터넷에 있다. 북코카서스의 젊은이들도 지구촌 곳곳에 동년배들처럼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큰 관심을 보인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표 5> 이들에게 핸드폰과 인터넷은 정보를 얻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sup>46</sup> Mairbek Vatchagaev, "The Dagestani Jamaat," *North Caucasus Analysis*, Vol. 8, Issue: 49, 2007.

<sup>47</sup> [http://irgamag.com/?page=terrorism\\_20100817\\_russia](http://irgamag.com/?page=terrorism_20100817_russia) (검색일:2010.11.11)

<sup>48</sup> [http://www.jamestown.org/single/?no\\_cache=1&tx\\_ttnews%5Btt\\_news%5D=34365](http://www.jamestown.org/single/?no_cache=1&tx_ttnews%5Btt_news%5D=34365)(검색일:2010.11.11)

<sup>49</sup> <http://www.kavkazcenter.com/eng/> 체첸 이슬람 무장단체의 홍보수단 '카프카즈 센터'(검색일:2010.11.11)

<sup>50</sup>

[http://issue.media.daum.net/foreign/0911\\_world\\_inside/view.html?issueid=4746&newsid=20100405225311640&p=hankooki](http://issue.media.daum.net/foreign/0911_world_inside/view.html?issueid=4746&newsid=20100405225311640&p=hankooki)(검색일:2010.11.04)

[표 5] 젊은이들의 커뮤니케이션 접근 수단

지역	핸드폰	인터넷	도시지역 인터넷 카페에서 1시간 사용료
체첸	28%	21%	2.10USD(60Rubles) Grozny
다게스탄	52%	34%	0.60USD(17Rubles) Mahachkala
잉구셰티아	69%	31% <sup>51</sup>	1.40USD(40Rubles) Nazran
카바르디노-발카리아	64%	14%	1.40USD(40Rubles) Nalcik
북오세아티아	60%	38%	1.05USD(30Rubles) Vladikavkaz
스타브로폴	86%	53%	0.60USD(17Rubles) Pyatigorsk

자료: 세계은행 (2005년 기준으로 필자가 재구성)

특히 <표 5>조사의 응답자들은 러시아의 여타 다른 지역이나 세계 다른 나라 젊은이들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말하면서 이 점은 자신들에게 매우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북코카서스의 젊은이들은 여행절차가 까다롭기도 하거니와 비용도 많이 들고 제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실상 자유로운 여행이 어렵다.<sup>52</sup> 이 때문에 이들은 더더욱 이러한 통신매체에 더욱 의지하게 되고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라디오도 이슬람 사상 전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트랜지스터가 전파 방송의 일대 혁명이었던 것처럼 이 라디오가 과격 이슬람의 사상을 북코카서스 산간벽지까지 전달한다.<sup>53</sup> 이 라디오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문맹자들에게도 쉽사리 이슬람 사상을 전파할 수 있다는 점인데 라디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과격단체들의 주장은 다소 거칠고 원색적이며 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자극하고 또한 이들을 선동한다.<sup>54</sup>

북코카서스의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이러한 수단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데 'You-Tube'

<sup>51</sup> 공화국 내 일련의 테러 사건 이후(2004년 6월의 정부와 청사와 경찰서에 대한 테러공격) 폐점한 잉구셰티아의 공공 인터넷 카페들은 당 수치(지역 젊은이들의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

<sup>52</sup> GOSKOMSTAT(2003), 유학과 취업, 휴가 등을 포함해 북코카서스 젊은이들은 단 7.7%만 이동하는(집 밖으로 벗어나는 이동) 경향을 보였다. 러시아 연방 내 다른 지역 젊은이들의 평균은 13.5%.

<sup>53</sup> John K. Cooley, 『Unholy Wars: Afganistan, America and International Terrorism』, London Pluto Press, 2000, p.31-32.

<sup>54</sup> 박찬기, '이슬람의 과격화와 테러리즘,' 『국방연구』 제45권 제1호 2002년 6월, pp.39-70.

나<sup>55</sup> 자신들의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해 테러의 공포를 극대화하거나<sup>56</sup>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다른 이슬람 과격단체와 일반 네티즌들에게도 성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sup>57</sup> 그리고 그 효과는 결코 무시할 것이 못되는데 다게스탄 이슬람 무장단체의 웹 사이트인 'jamaatshariat.com'에는 최소 500명 이상이 방문하며 때때로 1,000명을 넘길 때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웹 사이트에 올려진 무장세력 지도자들의 방송 동영상은 특히 무장단체에 어떠한 형태의 열망을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들 이슬람 무장세력의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Kavkazcenter.com', 'islamdin.com', 'jamaatshariat.com' 등이 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도쿠 우마로프에 의해 주장된 북코카서스 이슬람 제국을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사회의 대중 매체의 발달로 테러의 현장을 생생히 송출하여 목격자들로 하여금 희생자들과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것에도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이 있지만 본 논고에서는 그보다 이처럼 TV와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장단체가 적으로 규정한 상대에 대한 공동 전선에 나설 것을, 일반 주민들 특히, 젊은 무슬림들에게 전파하고 또한 그러한 방식이 적지 않은 효과를 본다는 것에 주목하며 본 이론을 북코카서스 테러리즘의 원인 규명에 적용하였다.

#### IV. 결론

위에 서술한 이론들은 학계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테러리즘 이론들으로써 실제로 테러리즘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연구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어떠한 테러도 단독적인 이유로 실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테러리즘은 지역적,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인 요인 등이 뒤섞여 발생하기 때문에 테러를 규명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이론을 접목시켜야 한다. 그런 논점에서 본 논고에서는 테러리즘 발생 원인에 거론되는 다양한 이론들 중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이론을 적용하여 북코카서스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상대적 박탈감 이론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북코카서스 지역에서의 상대적으로 심각한 경제난과 실업률,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인해 테러리즘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동일시 이론에

<sup>55</sup>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You-Tube에 매우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을 담아 배포하는데 전투장면은 물론, 러시아 연방군에 대한 공격 장면, 2009년 6월 다게스탄 내무장관이었던 아딜기레이 마고메드타지로프(Adilgirey Magomedtagirov)의 암살 장면까지 담았으며 심지어 전투훈련, 군사 이동, 부상병 후송, 겨울에 강에서 낚시를 하고 어떻게 식사를 준비하는지에 대한 방법 등 그들의 일상생활까지도 담는다.

<sup>56</sup>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02529>  
(검색일:2010.11.15)

<sup>57</sup> <http://www.hani.co.kr/section-007100007/2005/02/p007100007200502111744136.html>  
(검색일:2010.11.5)

서는 당국의 초강경대응에 대한 반감이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이루게 하고 테러리스트들에게 협조토록 하였으며 심지어 일반인도 테러리스트로 변질되어 테러리즘에 일으킨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제정치체제 이론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주권 국가가 전 세계의 이슬람 테러세력은 물론, 북코카서스의 이슬람 무장단체들에게도 지원을 한다는 추론은 할 수 있지만 신뢰성 있는 정보의 접근 제한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테러단체에 의도적인 지원을 하였는가와 또 이것이 북코카서스의 테러리즘을 부추기는가에 대한 확신을 내릴 수 없었다. 현대사회구조이론은 대중 매체의 발달과 급속한 도시화에서 북코카서스의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인터넷이나 라디오 등의 대중 매체를 이용해 테러리즘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북코카서스 불안정은 러시아 연방의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행해지고 있으나 실제로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러시아 연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북코카서스의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을 연구하는데 있어 전반적으로 신뢰감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이렇다 할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며 그나마 현존하는 통계들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말처럼 부정확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 이를 가려내는 것도 또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코카서스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의 획득이 우선 되어야 하고 북코카서스의 복잡한 사정을 고려한, 더욱 심화된 방식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강영숙, 이상철, '테러리즘의 이해,' 도서출판 『진영사』, 2008,  
 박찬기, '이슬람의 과격화와 테러리즘,' 『국방연구』 제45권 제1호 2002년 6월.  
 전호진, '이슬람 원리주의의 실체,' 『한반도국제대학원』, 2007.  
 최친태,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대영문화사』, 1997.  
 ,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대영문화사』, 2006.  
 현승수, '북카프카즈 와합주의문제의 기원,' 『슬라브 연구』, 제20권 1호, 2004.  
 , '체첸전쟁과 국제 이슬람 무자히딘 운동,'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7권 2집, 2007.
- A. Schmid and A. Jongman, 'Political Terrorism.' 『Theories And Literature』, 1988.  
 Aleksei Malashenko, 'Dagestan: A New Flashpoint In Russia's North Caucasus,'  
 Commission on Security & Cooperation in Europe, Helsinki Commission, 16. June  
 2009.  
 Aleksei Malashenko, 'Chechnya After the Cancellation of Counter-Terrorist Operation,'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70, 21.12.2009.  
 Arbakhan Magonedov, 'Dagestan and the Russian State: "Stable Instability" Forever?,'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70, 21.12.2009.  
 Dore Gold, 'Saudi Arabia's Dubious Denials of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Terrorism,'  
 『Jerusalem Viewpoints』, No. 504, 1 October. 2003.  
 Greg Mortenson, Relin David Oliver, "세 잔의 차," 과주 『이레』, 2009.  
 Hunter, Shireen T., Thomas, Jeffrey L., Melikishvili, Alexander, Collins, James F. (FRW),  
 "Islam in Russia: The Politics of Identity and Security," 『M. E. Sharpe』, 2003, p.  
 383-384.  
 John K. Cooley, 『Unholy Wars: Afganistan, America and International Terrorism』,  
 London Pluto Press, 2000.  
 Louise Richardson, "The Roots of Terrorism," 『Routledge』, 2006.  
 Mairbek Vatchagaev, "The Dagestani Jamaat," North Caucasus Analysis, Vol. 8, Issue:  
 49, 2007.  
 Michael State Doran, "The Saudi Paradox," Foreign Affairs, 1/2. 2004.  
 Ted R. Gurr, 'Why Men Reb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Thomas Lauren Friedman, 이영민 역, "Hot, Flat, and Crowded : Why We Need a Green  
 Revolution - And How It Can Renew America," 『Farrar Straus & Giroux』, 2008.

The Voice of Russia : <http://english.ruvr.ru/2010/09/20/21318113.html>

(검색일:2010.11.11)

<http://www.kavkazcenter.com/eng/> 체첸 이슬람 무장단체의 홍보수단 '카프카즈 센터'(검색

일:2010.11.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196069>(검색일:2010.11.15)

<http://www.themoscowtimes.com/vedomosti/article/north-caucasus-attacks-rise-4-times/416566.html> Moscow Times (검색일:2010.11.02)

[http://www.sras.org/medvedev\\_reach\\_out\\_to\\_islam](http://www.sras.org/medvedev_reach_out_to_islam)  
(검색일:2010.11.02)

<http://www.newizv.ru/news/2008-07-28/94729> Novyye Izvestiya, 28 July 2008.(검색일:2010.11.15)

<http://www.crisisgroup.org/en/regions/europe/caucasus/192-russias-dagestan-conflict-causes.aspx>(검색일:2010.11.15)

[http://www.jamestown.org/single/?no\\_cache=1&tx\\_ttnews%5Btt\\_news%5D=35497](http://www.jamestown.org/single/?no_cache=1&tx_ttnews%5Btt_news%5D=35497)(검색일:2010.11.15)

<http://ns.worldbank.org.ru/lacava/3e.pdf>(검색일:2010.11.15)

<http://www.reliefweb.int/rw/rwb.nsf/db900sid/SNAA-82K3UT?OpenDocument>(검색일:2010.11.15)

<http://www.opendemocracy.net/article/email/wahhabi-village-in-dagestan>(검색일:2010.11.15)

<http://www.criticalthreats.org/russia/violent-summer-north-caucasus-analysis-ingushetia-bombing>(검색일:2010.11.15)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docs/ngos/AI3\\_RussianFederation97.pdf](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docs/ngos/AI3_RussianFederation97.pdf)(검색일:2010.11.16)

<http://www.opendemocracy.net/author/tanya-lokshina>(검색일:2010.11.15)

[http://irgamag.com/?page=terrorism\\_20100817\\_russia](http://irgamag.com/?page=terrorism_20100817_russia)(검색일:2010.11.11)

[http://www.jamestown.org/single/?no\\_cache=1&tx\\_ttnews%5Btt\\_news%5D=34365](http://www.jamestown.org/single/?no_cache=1&tx_ttnews%5Btt_news%5D=34365)(검색일:2010.11.11)

[http://issue.media.daum.net/foreign/0911\\_world\\_inside/view.html?issueid=4746&newsid=20100405225311640&p=hankooki](http://issue.media.daum.net/foreign/0911_world_inside/view.html?issueid=4746&newsid=20100405225311640&p=hankooki)(검색일:2010.11.0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02529>(검색일:2010.11.15)

<http://www.hani.co.kr/section-007100007/2005/02/p007100007200502111744136.html>(검색일:2010.11.5)